

배포 2026. 10. 20.(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0. 2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 2026. 10. 2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안정적인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지원합니다

- 11월 19일(목)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551,864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
-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수능 문답지 보관·관리 등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하,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였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 예정자는 전년보다 2,310명 감소한 551,864명이다.

※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시각장애) 포함 시험 종료시각 : 21시 48분

정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교통 소통 원활화 >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한,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등 >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10~13:35,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

수험생은 11월 13일(금)부터 기상청 누리집(www.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시도에서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

<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 관리를 위해 철저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하며, “수험생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수험생 유의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담당 부서	대 학정책관 대 입정책과	책임자	과장	신진용 (044-203-6885)
		담당자	사무관	이준혁 (044-203-6890)
			교육연구사	염동렬 (044-203-6891)